

지난주 말씀에 대한 목회자 지침사항 - 교육국

지난 주일 수요일 말씀 이후 교역자들의 많은 문의가 교육국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난 주 수요일 말씀 포도주 말씀에 대해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들을 할지 어떻게 들을지 알고 계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지 보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다 내놓으면 30개론과 혼동이 된다.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고 능력으로 행한 것을 내놓게 되니 은혜시대 역사 펼치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쪼개서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만 쳐다보면 안됩니다. 주님을 못봅니다.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진리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하지시 못합니다. 말씀으로 깊이하시니 잘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렸기 때문에 수요일 말씀 더 좋은 포도주처럼 더 좋은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100만 선교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전의 방법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100만 선교에 대해서 집중하기 보다는 후반기 많은 생명이 몰려 올수 있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상이 많은데 행하지 못한 것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30개론 말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많은 생명을 불러와야 합니다

이번주 수요일말씀의 “이해란 그 행하신자의 심정과 처지와 입장을 안다. 믿고 인정한다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외치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하면 개인에게도 섭리사에도 물이 포도주처럼 변하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국과 세계 가운데 말씀을 외치므로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자 부서마다 개인마다 말씀의 능력받아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의 은혜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